

철학사

64 미국 실용주의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금요일 마지막 시간에 화이트헤드의 저서 『과학과 현대 세계』에 대한 논평을 마치면서, 오늘 방송 초반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항상 우리가 준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어도 고전 형이상학과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대 형이상학에서는 실체, 즉 어떤 영원한 실체의 정체성이 궁극적 실재, 즉 그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 요소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는 정체성은 없지만, 길고 지속적인 사건 속에는 지속적인 긴장 관계가 존재합니다. 결국 우주의 역사는 하나의 긴 사건입니다. 물론, 모델 1, 모델 2, 모델 3과 같은 개념을 생각한다면, 그 변화는 18세기 기계론적 모델에서 유기론적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19세기에 새로운 과학, 즉 발생생물학, 생명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이 아닌 다른 설명들, 상대성 이론, 에너지 물리학 등이 발전하면서 물질의 고체성을 해체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델에서, 화이트헤드가 여전히 양적 다원주의자라는 점, 즉 사건의 수에 있어서 그렇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건은 아주 많고, 아주 많고,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정은 얼마나 많을까요? 아, 과정이면 무수히 많습니다.

그는 양적으로는 다원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과 과정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모두 동일한 질적 일원론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설명이 신에게도, 우리가 가진 특정한 감각 지각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질적 일원론이군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의 문제점 중 일부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그는 신과 창조물 사이의 질적 차이에 충분한 비중을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원한다면 인간과 자연 현상 사이의 질적 차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자연 현상입니다. 인간에게는 뭔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적인 일원론은 모든 것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동일한 과정으로 묶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계론적 모델은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에서처럼 인과적 상호작용과 같은 외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기적 모델에서는 관계가 내부적이며,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본질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즉, 내부적 관계입니다.

외부 관계 덕분에 18세기는 지식의 완전한 객관성을 추구하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것이죠. 칸트가 이러한 생각을 뒤집었지만, 화이트헤드에 이르러서는 주체-객체 연속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음, 다시 말해서, 모든 알려진 상황에서 저는 이 코드에 걸려 넘어집니다. 모든 알려진 상황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선행 사건들이 제공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새로운 사건에서 제공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이 내려집니다.

에는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 모두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물론, 화이트헤드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계론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사실과 가치의 분리인데, 화이트헤드는 ISCI의 전반적인 목적론적 본질 속에서 이러한 분리가 사실과 가치의 통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특히 사실과 가치의 분리에 대한 그의 비판, 그리고 기계론적 모델에 대한 그의 비판이요.

제가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그가 유기적 모델을 일반화하는 방식, 즉 그가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전통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는 유기적 모델, 아니, 기계론적 모델이 실제로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몇몇 현상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적 모델은 기계론적 현상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개념일 수는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 좀 더 개인주의적인 모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이 키르케고르, 마르틴 뷔버 같은 개인주의적 실존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인간이라는 범주를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가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당신과 내가 기억이라는 흐름을 통해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 기억은 세월이 흐르면서 특정한 자질을 유지시켜 주는 경험의 흐름, 즉 당신이라는 개인적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빈약한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화이트헤드의 윤리는 연속적인 행위자가 없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이미 쓰여졌습니다.

오늘날 누가 과거의 일, 심지어 어제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그런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죠. 자, 이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주제를 계속 논의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주말이 지나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까요? 제발.

그가 추구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전반적으로 하나의 과정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하고, 구체화를 잘못된 곳에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그 범주, 궁극적인 것을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맥박처럼 느껴봤습니다. 하지만 이 맥박과 창의성은 여전히 체계는 추상적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에 구체성을 부여합니다.

혹시 당신이 '추상적'이라는 용어를 그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개념이라는 뜻인가요? 제가 보기에 추상적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그는 '추상적'이라는 용어를 경험과는 전혀 무관한 정신적 구성물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설명하는 과정은 경험을 실제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믿는 거죠. 당신은 아직 그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도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이해되세요? 묘사적인 단어들이 단순히 단어를 넘어 경험을 진정으로 포착하는 무언가로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의 사건 묘사가 감각 지각의 순간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대학에 처음 갔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묘한 기분이었죠.

당신은 사춘기 특유의 어색함, 자신감, 그리고 완전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기묘하게 뒤섞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아시다시피, 열린 결말의 사건 이죠. 다시 말해, 당신은 어떤 과거, 어떤 지속적인 경험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눈앞에 펼쳐지죠. 예를 들면요? 음, 바로 오리엔테이션 문제예요. 낯선 캠퍼스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를 기대하는 듯한 선생님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틀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온갖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어요.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이상적인 목표, 즉 추구할 목표를 고르는 것 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주관적인 목표. 결정. 그렇게 방향이 정해졌다.

그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에서 파생된 후속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입생으로서 철학 개론 수업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수업의 객관적인 데이터 말입니다. 당신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화이트헤드에게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실용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내면화하느냐입니다. 그 데이터가 당신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가능성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단순한 방식으로 설명하면, 그 설명은 매우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그 설명이 추상적이라고 느껴진다면, 다시 생각해 보고, 과연 잘 들어맞는지 자문해 볼 것입니다. 좋은 설명이라면, "그 설명은 딱 들어맞는 설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기계론적 모델에서 유기적 모델로의 전환, 가치 분리와 가치 통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때, 물질에서 과정으로, 그리고 외부에서...로의 전환에 이미 내재된 것 외에 기계론적 모델에서 유기적 모델로의 전환에서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저는 그런 형태의 설명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삼중적 설명, 삼중적 구성 요소에 따른 사건들의 관점에서 과정을 정의하면, 그때서야 이것이 유기적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적 관계입니다. 주체와 객체의 연속체가 존재하죠.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설명하는 과정의 구성 요소입니다.

네, 맞아요. 이것들은 별개의 항목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의 개념을 풀어 설명한 것뿐이죠.

다시 말해, 아주 일관성 있는 계획이라는 거죠. 데이비드? 제가 색슨 모더니즘을 읽다가 떠오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보려는 거예요. 저기 구석에 있는 데이비드 목소리 들리세요? 밥? 데이비드, 좀 더 크게 말해주세요.

제가 읽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책 54페이지에서 그는 시인들이 반응적인 세계관이 아닌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따랐다면 자연에 대한 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시를 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일관성을 유지했다면 말이죠.

그런 일도 있지 않았나요? 제가 문학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시대에도 인간 정신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 알렉산더 포프의 인간론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그는 인류에 대한 올바른 연구는 바로 인간 자체라고 말했죠. 네, 맞아요.

인간 이성을 찬양하고 칭송하면서도 여전히 객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객관주의 적 입장을 취하는 그들은 일차적 속성을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일차적 속성이 자신의 감각 기관에 미치는 영향인 이차적 속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외부 사물에 그러한 이차적 속성을 부여할 때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마치 장미가 정말로 붉은 것처럼. 마치 장미에서 정말로 향기가 나는 것처럼. 알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아, 그냥 언어적 관습이나 간편한 표현일 뿐이에요. '해가 뜬다' 라고 말할 때, 해가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장미가 빨갱다' 라고 말할 때, 장미가 정말 빨갱다는 뜻은 아니고요? 해가 뜨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장미가 빨갱게 보이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화이트헤드가 그와 관련해서 한 말은 비판이라기보다는 기계론적 토대 위에 객관적인 미적 가치에 기반한 미학을 발전시키는 문제점을 수사적으로 폭로한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시대의 미학 이론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흄은 미학을 주관적인 감정, 열정, 취향 등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우리의 취향에 맞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장미 자체에 심미적인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심미적 가치는 사용자 만족도 에 있습니다 . 도덕적 가치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만족도에 있으며,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수업 이 시점에서 오후 늦게나 저녁에 자유 토론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 도움이 될까요? 헤겔부터 시작해서 화이트헤드까지의 후기 헤겔 철학까지, 아니면 듀이까지 기다릴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듀이 끝나고 나서 하죠. 듀이 후에요? 좋아요.

듀이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쯤이 되겠네요. 시간을 정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나올 거예요. 이번 주는 꽤 바쁠 것 같네요 .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의 실용주의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실용주의와 과정철학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철학 학회에서 우리는 과정 형이상학에 대한 학회를 개최했는데, 그 학회에서 화이트헤드와 듀이를 논의했습니다. 듀이의 과정 형이상학 역시 다른 종류의 과정 형이상학이기 때문입니다.

화이트헤드의 이론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용어들이 듀이의 이론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물과 추상물이라는 용어 말입니다. 듀이 역시 자신의 이론의 핵심에 어떤 사건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상황, 즉 문제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확실히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유기적입니다.

관계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다. 앞에 있어서 순수한 객관성을 거부하고 주체-객체 연속체와 같은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사실과 가치의 분리가 아닌, 사실과 가치의 통일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다시 나타난다 .

제가 화이트헤드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을 칠판에 적은 이유는 화이트헤드에 대한 토론을 촉발 하기 위해서였지만 ,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

솔직히 그게 정말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듀이와 화이트헤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실용주의의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용주의'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론보다 실용적인 것을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실용적인 것이 이론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죠.

혹은 원하신다면,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경험이 우선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제넬, 당신도 좋아할 만한 말이죠.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것이 우선한다는 거요.

듀이와 제임스를 비롯한 화이트헤드 같은 학자들에게 있어, 영국의 경험주의자들은 추상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성에 대한 호소는, 말하자면 헤겔적인 의미에서의 구체성에 대한 호소입니다. 헤겔의 변증법은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인 경험이다. 로크나 버클리 같은 사람들이 이론화한 경험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경험 그 자체이다.

그들은 단순한 개념에 대한 이론 등을 내세우며, 실용적인 것, 구체적인 것을 중시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사고와 행동의 관계입니다.

혹은 마르크스주의 같은 일부 전통에서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이론과 실천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관심사는 경험을 단순히 인지적인 경험뿐 아니라 정서적인 경험으로서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화이트헤드의 사상에서도 그러한 관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념적 이해뿐 아니라 물리적 이해까지 포함한다.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 그래서 실용주의자들이 지식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

제임스는 이론 그 자체를 위한 논리적 이론을 원한다는 의미로 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는 듀이가 로크를 지칭할 때 사용한 용어인 '관찰자적 경험주의'라고도 합니다. 관찰자적 경험주의.

관중 스포츠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아시죠?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거요. 몇몇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과도한 운동'을 하는 스포츠 말이에요.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관람 스포츠. 듀이의 요점은 존 로크가 경험을 관람 스포츠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오히려 참여가 중요하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경험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데카르트 전통에서 볼 수 있는 확실성에 대한 탐구, 또는 우리가 아는 한 존 로크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듀이는 『확실성에 대한 탐구』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확실성에 대한 탐구를 비판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누가 확실성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추구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확실성, 즉 실질적인 자신감입니다.

행동으로 옮기기에 충분합니다. 이처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 호소하는 모든 것의 기저에는 경험이 곧 현실이라는 근본적인 명제가 깔려 있습니다. 경험은 현실입니다.

혹시 당신이 여전히 경험을 로크의 단순한 관념, 즉 현실의 표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실용주의자라면 인간의 경험이 곧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지식사회학자가 할 법한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내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죠. 아, 그리고 실용주의 속에서 현상주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실용주의 속의 현상주의. 대학원 시절, 한 교수님께서 어느 날 많은 학생들이 놀라는 가운데 실용주의와 실증주의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둘 다 똑같이 나쁘다. 그게 그가 다른 대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때 했던 말이었다. 아시다시피, 실용주의와 실증주의가 대세였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것이 헤겔 전통이라는 점입니다. 헤겔이 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의식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인간 경험 속에서 펼쳐지는 변증법적 전개를 발견하고, 그것을 현실 전체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헤겔 전통에 매우 가깝습니다. 특히 듀이에게서 그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듀이는 초기에는 미국의 신헤겔주의 전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의 첫 출판물은 '더 모노스트(The Monist)'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들이었다. 흥미로운 제목이군. 더 모노스트.

그 당시에는 헤겔주의자들의 학술지였죠. 헤겔, 절대적 유일신론자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술지는 한동안 절판되었죠.

다시 발행되었을 때는 단순히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심을 갖는 학술지였습니다. 하지만 듀이 시대에는 헤겔주의 학술지였죠. 그러니까 듀이는 헤겔주의를 자연주의적 토대로 재해석한 또 다른 헤겔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헤겔의 제자인 브래들리를 자연주의적 토대로 이끌고 있었다. 듀이는 그 노인을 자연주의적 토대로 이끌고 있었다. 아니면 어쩌면 그는 미국의 제자인 조시아 로이스를 이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헤겔 전통과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이론보다 실천을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경험의 중요성. 두 번째 특징은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이것 또한 화이트헤드의 이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기적인 관계, 즉 상호 연결성 말입니다.

그러므로 실용주의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존 로크의 단순 이데아로 대표되는 경험에 대한 원자론적 관점을 모두 비판한다. 로크의 이데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본질적인 관계가 없으며, 관계는 순전히 외부적인 것이다.

연상 법칙이 그들에게 관계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요. 음, 그런 종류의 것은 금기시되죠. 제임스는 의식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의식의 흐름은 서로 연결된 것이다. 의식의 흐름 전체 안에는 유기적인 관계들이 존재한다. 듀이는 현재의 경험을 미래의 경험을 내다보는 것, 미래의 경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 개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듀이에게 아이디어란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을까요? 과거의 경험에서 얻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따라서 그러한 유기적인 상호 연관성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을 거부합니다. 육체와 정신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과 가치의 이원론 또한 거부합니다.

사실과 가치의 분리. 가치는 경험의 맥락 속에서, 그리고 미래의 경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철학적 자연주의입니다. 철학적 자연주의. 자연주의 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

첫째는 방법론적 자연주의이고, 둘째는 형이상학적 자연주의입니다.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말 그대로 자연 과학의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방법론적 자연주의자는 과학적 방법의 사용을 보편화합니다. 과학적 방법은 모든 종류의 탐구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는 듀이의 저서 『철학의 재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가 원하는 재구성은 과학적 방법의 보편적 적용을 통한 재구성입니다. 실험적 사고방식을 좋아하신다면, 그의 저서 『실험 논리 에세이』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편화.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에 관해서도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진리에 대한 그의 유명한 실용주의적 관점은 사실 가설에 대한 실험적 검증을 원한다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 하는 방법입니다 . 그리고 찰스 샌더스 피어스는 과학적 방법이란 불안정한 사상의 흐름 속에서 믿음을 확고히 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 방법. 그러니까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아주 분명하죠 . 형이상학적 자연주의, 이 모든 것에서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나타납니다.

제 생각에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는 제임스가 아니라 듀이에게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임스는 일종의 유신론자 였으니까요.

아, 제임스가 믿는 신은 유한한 신인 것 같네요. 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그는 일종의 유신론자입니다.

하지만 듀이는 매우 명백하게 형이상학적 자연주의자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연적 과정 일 뿐이며 , 이러한 자연적 과정은 진화론적 설명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학의 재구성』에서 그가 과학적 방법의 적용을 보편화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진화론적 설명까지 보편화하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의 역사를 그 자체로 진화 과정으로 간주하려고 합니다. 자연 선택 이론 말입니다.

이는 고정된 형태, 종의 불변성 등을 모두 배제합니다. 따라서 듀이의 경우, 실용성의 우선성, 만물의 유기적 상호 연관성,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세 가지 특징은 형이상학적인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용어가 익숙하신가요 ? 그렇다면 적어도 곰곰이 생각해 볼 만큼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찰스 샌더스 피어스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실용주의라는 용어가 여러분에게 상대주의, 즉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적 이론을 의미한다면 , 피어스는 실용주의자가 아닙니다.

사실, 피어스는 제가 언급한 다른 두 부류와 자신을 구분 짓기 위해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실용주의자라니. 요점은 피어스 역시 진리의 객관성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객관성. 그는 실제로 과학자였으며, 미국 해안 조사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학적 방법론을 지식 습득의 한 방식으로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와 듀이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바로 피어스의 연구였고, 그는 자신의 연구를 '피어스의 연구'라고 부르지 않고 '피어스의 연구'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실용주의의 역사는 항상 피어스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두 편의 논문이 오늘날 철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 찾는 곳은 아닌 '대중 과학 월간지'에 실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1877년에 '믿음의 고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1878년에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진실성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의미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두 질문 모두 답은 같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를 살펴보세요. 실질적인 결과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개념, 아이디어, 이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어보세요 .

그것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의 확립』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안의 진실을 확인 하는 데에도 본질적으로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 확신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확립하고 싶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중 세 가지 방법을 거부하고 네 번째 방법을 옹호합니다.

첫 번째는 고집이라는 방법입니다. 이는 사실상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사실을 들먹이며 나를 압박하지 마라.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집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의 요점은 분명히 진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진실을 보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권위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서로 상충하는 권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충하는 권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 번째 방법은 전통에 근거한 것입니다.

누구의 전통인가? 누구의 관습인가? 물론, 그것은 권위의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그가 옹호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입니다. 과학적 방법 말입니다.

관찰에 앞서 어떤 것을 확인하는 선형적 전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즉, 관찰자 공동체, 다시 말해 과학 공동체 내의 공개된 증거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정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말했어야 했던 것은 전통의 방법이란 다양한 전통에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호소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 그의 요점은 직관이 전통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의 합리적 증명에 대한 관심은 배제되었을까요? 왜 근본주의적 접근 방식, 즉 제1원리를 찾고 거기에서 연역하는 방식은 배제 되었을까요 ?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피어스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데카르트 전통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인쇄본이 있어요 . 이걸 받으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받으셨군요. 네, 모두 받으셨나요 ? 혹시 남는 거 있으면 나중에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피어스의 저작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참고하는 그의 논문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에세이였고, 그의 저술 대부분은 에세이였습니다.

그는 서두에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가 스콜라 철학과 철학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고 언급합니다. 철학은 보편적 회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반면, 스콜라 철학은 근본적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확실성의 궁극적인 검증은 개인의 의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난로로 데워진 방 안의 오붓한 시간. 진리를 직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언제나 은밀한 일이다. 스콜라 철학은 현인들과 가톨릭 교회의 증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셋째, 중세 시대의 다형적 논증은 특정 입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논증을 포함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논증을 제시했을까요? 중세 시대의 다형적 논증은 이제 하나의 추론 과정으로 대체되었으며,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전제에 의존합니다. 데카르트의 『성찰』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넷째, 스콜라 철학은 신앙의 신비를 다루었지만, 모든 창조물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반면 데카르트 철학은 많은 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철학자들 대부분은 데카르트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칸트까지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완전한 불신에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글썄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혹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놓치곤 하죠. 네, 바로 믿음 말이에요.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누군가가 지적해 주면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하게 되는데 , 그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불신에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동일한 형식주의가 데카르트적 판단 기준에도 나타나는데, 이는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 참이라는 논리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사람이 확신한다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의미해집니다. 확신하는 것과 어떤 것이 참인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요 .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 당신한테는 그럴지 몰라도 , 저한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설령 저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자명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 친구의 요점은 명확성과 분명함이 진실의 기준이 아니라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 주장 의 확정성보다는 다양한 논증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

그건 마치 데카르트가 수학적 방법에 너무 큰 비중을 두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데카르트 시대의 유럽 대륙 과학, 특히 광학과 역학에서는 수학적 방법이 주된 방법이였지만, 후대의 실험 과학에서는 수학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험적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비이상주의적 철학은 절대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매개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매개 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오직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과학적 추론의 유일한 정당성은 그 결론이 사실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설명한다는 것은, 즉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정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는 데카르트주의 에 반대하는 글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되풀이하며 , 우리에게는 자기 성찰 능력이 없고 직관 능력도 없다고 말한다.

절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 다시 말해, 기호 없이는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기호도 없다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같은 시기의 영국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스펜서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는 것 같다는 말이 그의 동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꽤 유행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면, 등등. 하지만 저는 이것이 많은 것들, 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알 수 없는 것들에 관해서도 해당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건 마치 어떤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과 같죠. 뭐, 그게 바로 피어스의 생각입니다. 이 글에는 , 뭐라고 해야 할까요, 또 다른 방법론적 혁명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데카르트는 스콜라 철학의 방법론에서 벗어난 방법론적 혁명을, 베이컨은 귀납적 방법론의 혁명을, 칸트는 초월적 방법론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가능성의 주관적 전제 조건을 파악하려는 시도. 그리고 이제 실험 방법론에 또 다른 방법론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과학적 방법론의 보편화.

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어스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객체'라고 부른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실제 .

털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그는 해안 조사 에 참여했지만 단순히 낚시만 한 게 아니었어요 .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방법론적 자연주의, 즉 방법론적 자연주의입니다.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진정한 실용 주의자들에 의해 채택된 것입니다 .

제임스와 듀이는 탁월한 인물들입니다. 제임스는 실용주의를 철학적 논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신념의 고착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신념을 바로잡는 방법, 논쟁을 해결하는 방법. 철학적 논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 신념의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가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경우,

단순히 그런 식으로 믿음을 바로잡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라는 개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바로 이 부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피어스의 적수였던 데카르트와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경험을 단순한 관념으로 분석한 로크와의 차이점에 가깝습니다.

수동적으로 수용되었다. 단지 연상이라는 심리적 과정의 관점에서 결합되거나 분리될 뿐이다. 경험 이 원자화되는 것이다 .

제임스가 추구하는 것은 원자론적 경험이 아니라, 보다 전체적이고 상호 연관된, 말하자면 유기적인 경험입니다. 그런 의미의 경험이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방식과 훨씬 더 유사한 경험 입니다 .

원자론적 감각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썼던 거 기억나? 원자론적 감각 데이터는 색깔 덩어리가 아니야. 그건 그냥 덩어리일 뿐이야. 색깔은 그 덩어리에 덧붙이는 별개의 원자론적 감각 데이터인 거지.

아시다시피, 원자론적인 감각 자료, 즉 그러한 의미에서의 경험이라는 개념 전체는 고도의 추상화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경험은 일차적 속성과 이차적 속성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한 관념으로 원자화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험은 연속체이며, 흐름이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제임스에게 있어 구체적인 경험이란 언제나 심리적인 경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입니다 .

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 어떤 감정을 느끼 냐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방식에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른지 주목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저는 대개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론을 구상하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임스는 경험을 객관화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경험'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어떻게 느끼세요? 집중력이 떨어지나요? 경험상 집중력이 떨어지나요? 아니면 만족감을 느끼시나요? 이제 이해되시죠? 집중력 부족 , 만족감. 정, 반, 함.

만족감, 화이트헤드의 용어 중 하나죠. 부주의함을 느끼시나요? 만족감을 느끼시나요? 이해 되시죠? 심리적 경험이란 이런 겁니다. 사실, 이번 주 스템프의 글을 읽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제임스의 초기 교육은 의학이었습니다.

생리학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19세기 후반 독일 최초의 실험 심리학 연구소에서 잠시 연구하면서 심리학에 입문했다. 생리 심리학을 실험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배경지식을 좀 아시나요? 그건 심리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여겨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엔 1910년이나 1911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철학 저널'이라는 학술지가 '철학, 심리학, 과학적 방법론 저널'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름이 참 길죠.

철학, 심리학, 과학적 방법론 등의 저널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미국으로 돌아와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자리를 얻었을 때, 그는 철학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철학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생리심리학에서 내성심리학으로, 철학적 심리학으로, 그리고 결국 철학 자체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글쓰기가 가능했죠. 철학이 본격적으로 고도로 전문화되고 기술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특히 당시에는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지적 탐구의 장이었죠. 그래서 피어스가 '대중 과학 월간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경험의 다양성, 즉 종교 심리학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철학자들은 여전히 종교적 경험과 그 존재 이유에 대한 논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텔 교수의 강연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은 종교 다윈주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주 강연처럼 신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종교적 다윈주의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텔은 작년에 그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심리적 상태, 즉 심리적 준비 상태를 바탕으로 하거나 그 영향을 받아 얻은 구체적인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념을 정립하고 철학적 이론의 의미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 이론이 심리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유물론을 정의합니다. 자, 여기 그의 유물론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 정의입니다.

유물론은 도덕 질서의 영원성을 부정하고 궁극적인 희망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가 유신론과 거의 동일시하는 영성주의는 영원한 도덕 질서를 긍정하고 희망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물론과 유신론, 즉 대립되는 세계관을 정의하는 기준점은 바로 희망의 심리학입니다.

희망이라는 심리적 경험. 어떻게 그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그 이론이 당신에게 희망이라는 경험, 즉 만족감을 준다면, 우리는 그 이론이 실효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진리를 간단히 말해서 실용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진리는 실용성입니다. 따라서 그는 신념의 심리적 금전적 가치에서 출발하여 진리에 대한 재정의로 나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경험이 곧 우리의 현실이라는 실용적인 관점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희망이 있거나 없는 현실이며,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 언급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지만,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요약하고 그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본 다음 존 듀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